



## 현 장 중 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2'

# 과채류가격 상승 · 농업투입재 하락 올해 농업소득 2% 내외로 증가할 듯

홍보부

**올** 해는 과일부문이 호조로 돌아서고 축산 부문의 호조세가 이어져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약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업투입재 가격은 국제유가의 안정으로 환율의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전년대비 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姜正一)에서 발표한 「농업 대전망 2002」자료에 의하면 쌀은 재고부담으로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축산과 일부 과채류 부분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내부의 부문간 생산조정이 필요하고 2001년도 농가소득은 농외소득이 3.3%, 농업소득이 1.5% 증가하여 전년대비 2.5% 증가하였고, 2002년은 농외소득이 2.2%, 농업소득은 전년과 동일한 1.5% 증가하여 호당 농가소득은 1.7%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농업전망 2002]는 농산물 가격하락의 파급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경영안정제도, 보험제도, 직접지불제도 등 농가소득안정화정책

의 확대추진과 함께 농업인 스스로 생산 출하 조절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농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의 조기구축을 적극 권고하였다. 또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전략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98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제5차를 맞는 「농업전망 2002」는 국내외 농업 농촌경제전망 및 중국의 WTO 가입과 동북아시아 농업교역질서 전망 등 제 5부로 나뉘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시간에 걸쳐 발표되었다.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다.

### 국제 농업여건 변화 동향과 전망

#### 국제 교역질서 변화

1980년대부터 세계 각국의 농정은 자유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주의, 개방주의 농정으로 전환되고, 파생되는 농가소득문제와 지역문제는 직접지불제도 등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농정의 기본적 패러다임이 되었다. 이러한 전환이 UR 협정과 WTO 출범이라는 국제교역질서의 변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도국과 환경단체 등 NGO가 자유주의에 반발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입국들의 주장이 호응을 얻어 가는 추세이므로 WTO의 새로운 농산물 협상은 이러한 다양한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렴하여 자유주의 무역과 절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UR 협정은 일단 모든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관세화, 국내보조 감축, 수출보조금 감축이라는 원칙만을 확립하고 구체적 내용은 각국이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WTO 협상은 이 같은 폭넓은 신축성을 규제하여 [광범위한 자유화에 이르는 포괄적 시장 접근]과 [상당 수준의 국내보조금 감축]을 실현한다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농산물시장 개방 속도는 가속될 것이다. 2001년 11월 도하라운드로 시작된 WTO뉴라운드 협상은 2004년경까지는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90년대 들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다. FTA는 WTO의 다자간무역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 협정을 통해 무역을 자유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본질적으로 관세 철폐를 비롯한 각종 교역·비교역 장벽을 없애자는 국가간 협정이다. 지역 내 자유무역협정

은 WTO 체제보다 무역 자유화 효과가 훨씬 크므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9년에 시작된 한국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진행된 것이다. 그간의 협상을 통해 농산물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대체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농산물분야는 양국간 관세 구조가 근본적 차이가 크고, 국내농업 여건상 농산물관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타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중국과 일본이 아세안 등 동남아 국

**농업정책의 핵심은 '농가소득, 상응한 소득보전정책 있어야 WTO 가입으로 농산물교역질서요동, 수출시장경쟁심화'**



가와 FTA 체결을 위해 경쟁하고 있어 한·중·일 3국간 협력체제를 구성해야 할 필요도 커지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태국,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1년 중국이 WTO에 재가입하여 회원국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차후 WTO 협상 구도에 미치는 영향 둘째, 세계 농산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셋째, 우리 나라와의 교역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포함한다.

특히 인접국이며 거대 농업국인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것은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 저가 중국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이 커짐을 의미한다. 채소류를 비롯한 원예작물의 수입은 이미 우리 시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국내산과 선호도가 같은 벼가 중국 내에서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저가의 중국 쌀이 수입되면 국내 쌀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중국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국내농업 보호라는 큰 틀에서 수입국 입장에 설 전망이다. 그러나 예외 없는 관세화를 수용할 뿐만 아

니라 2004년까지 단기간에 농산물 평균관세율을 31.5%에서 평균 17%로 감축하고 시장접근 물량을 대폭 늘리며,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쌀의 관세화, 마늘, 고추 등 고율 관세 품목의 관세인하, 보호주의적 관세운용 철폐, MMA 물량의 완전 이행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결과 소맥, 옥수수, 대두 등 전통적인 농산물의 생산이 감소하는 대신, 생산이 늘어나는 쌀과 채소, 과일 등의 품목에 대한 수입 개방 압력이 거세어질 것이다.

### 농산물 수출·입 여건 변화

일본은 1990년대 중반까지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은 감소하여 농산물 수입이 빠르게 증가한 결과, 쌀 이외의 곡물은 물론 채소, 과일도 각각 17%, 51%를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나라의 가장 중요한 농산물 수출시장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농산물 소비가 감소추세로 반전되고 화훼류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도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농업노동력의 노령화와 후계인력 부족으로 채소 부분의 생산력이 저하되었고, 식품공업과 외식산업의 발달로 적정품질의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 농산물 수입이 증대되고 있다. 채소 수입이 늘어나 재배농가에 피해를 주자 2001년 4월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바 있다. 중국의 과, 생표고, 골풀에 대해 SG(긴급 수입제한)를 발동하고, 한국에서 수입되는 과채류에 대해 검역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 조치로 수입제한조치는 철회되었고, 한국 과채류 수출에 큰 피해는 주지 못했다.



앞으로 일본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기존 수입 수요를 둘러싼 시장점유율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가격, 품질, 신용 등 포괄적인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시설채소, 화훼 등을 고급화하여 미국과 네덜란드와 시장점유율 경쟁을 하면서 최근 수년간 수출을 늘려왔으므로 저가 중국 농산물이 일본에 대량 수입되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있는 여지는 아직 크다. 그러나 수출국, 수출항의 다변화를 통해 수출을 늘려가며 무역 마찰을 피해야 한다.

시장개방이 확대될수록 수입농산물 가격이 국내농산물 가격 상승의 한계(가격의天井)가 되는 현상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수입농산물과 품질과 가격 면에서 차별성을 갖는 고품위 농산물 생산이 긴급하며, 국내 농식품의 고급화에 부응하여 소비자 수요 지향적인 생산체제의 정립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사과, 배, 감귤 등 과일은 검역상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수입이 개방되면 미국, 중국 등에서 수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수출을 신청한 국가는 미국, 뉴질랜드 정도이고 수입허가 절차에 3~10년이 걸리므로 당분간 수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제 쌀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산 중립종 쌀 가격은 2000/01년 톤당 313달러로 1998/99년도에 비해 33% 하락하였으며, 장립종 쌀도 톤당 272달러 수준이었다. 세계 쌀 교역량은 2,260만톤으로 교역량 중 중립종 쌀의 비중은 2002년 12.9%로 전망되고 있으나 점차 비중이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중립종 쌀 가격은 톤당 400달러 보다 약간 높은 수

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산 중립종 가격이 미국산보다 톤당 200달러 이상 낮아, 세계 중립종 쌀 교역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강력한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거시경제변수와 농업생산여건 변화 전망

2000년 하반기 이후 세계 경기 침체와 겹쳐, 2001년 미국 9.11테러로 세계경제가 냉각되어 2001년 하반기까지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농산물 수요여건은 좋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가 2002년부터 성장세로 접어들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서 2001년 2.8%의 경제성장을 보였다. 2002년 상반기부터 농산물 수요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유가, 환율 등도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 엔화의 약세로 수출과 자본재 조달에 장애가 될 것이다.

2001년 농업투입재 가격은 전년대비 0.5% 정도 하락하고, 2012년까지 연평균 2~3% 하락되어 경영비 상승은 억제될 것이다. 사료가격은 2001년에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0.4% 상승하였으나, 세계곡물시장 가격 안정으로 사료가격은 당분간 안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와 사료용 곡물 소비의 증가로 사료 가격은 불안정하며 상승될 전망도 있다.

2001년 농산물가격은 전년대비 4.8% 상승하였다. 쌀 가격은 전년 대비 3.2% 하락하였으나 과채, 채소 등 청과물 가격이 전년대비 1.3% 상승하고 축산물 가격이 16.6% 상승하여 전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였다.

## 주요 농산물 수급변화 전망

### 쌀

벼 재배면적은 1996년 105만ha에서 2001년에는 108만 3천ha로 늘어났으나, 1인당 식용 소비량은 감소속도가 빨라져 1995년 106kg에서 2001년에는 90kg 이하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재고량이 2002년에는 190만 톤에 이르러 재고율이 36%를 상회할 것이며 공급과잉에 따라 금년 벼 재배면적은 작년대비 3%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중국의 밀, 옥수수, 콩 생산이 줄어들고, 쌀 생산이 늘어나 국제 쌀 가격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쌀은 농가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2005년 이후에 적용될 쌀 시장개방의 폭은 농가경제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과수

1980년대 중반부터 배, 포도, 감귤 등 과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재배면적도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과수 면적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과일 간 가격 및 소득 격차도 좁아지고 있다. 그러나 추석에 출하가 가능한 조·중생종 품종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여서 시기별, 품종별 가격차가 아직 크다. 배는 2001년부터 면적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앞으로 3~4년간 성목면적이 늘어 생산량은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사과는 타 품목과의 상대 가격 및 소득 격차가 축소되고 있지만, 앞으로 3~4년간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감귤은 2001년부터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지만 성목면적이 2004년 이후

에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휴식년제와 폐원 정책 추진으로 면적과 생산량은 안정될 전망이다. 복숭아는 앞으로도 재배면적과 성목면적이 늘어 생산량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 농가경제 전망과 정책과제

중국의 WTO 가입으로 동북아시아의 농산물 교역 질서는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이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어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우리 농업은 중국의 저가 농산물과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편, 수출을 확대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990년대 농업성장을 주도한 과실, 과채류, 양념채소류 등의 수요가 감소하여 생산이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쌀 등 곡물생산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 2005년까지 농업 실질성장률은 -0.7% 내외로 떨어지고 농업 저성장 시대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2001년 대풍으로 인한 쌀 가격 저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쌀 과잉 구조와 함께 농가경제 성장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앞으로 농업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쌀 생산과 가격정책은 농업정책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쌀농업은 다수확생산체제에서 고품질 생산체제로 전환하여야 하며, 생산조정으로 적정 면적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논농업직불제의 확충과 전작 지원, 환경직불제 등 다양한 소득 보전정책의 조속한 추진이 과제이다.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위주의 생산·유통기반 조성하고 미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중심으로

생산·가공·판매 등이 계열화되어 신뢰받는 고유브랜드로 소비자 지향적인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쌀 품질에 따라 가격이 차별화되어야 하며, 수요기반을 넓히고 과잉재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개발·보급하는 등 다양한 소비촉진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 안정된 농업경영 어려운 농가 위해 과감한 농업구조조정정책 수립해야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농산물가격은 앞으로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농산물 가격도 하락하여 농업총소득은 연평균 2% 내외(실질) 감소할 전망이다. 적체되어 있는 고령농가 중심으로 이·탈농이 늘어나면 호당 소득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농업·농촌지역의 자연적, 사회 문화적 특징을 살려 그린투어리즘과 같은 농촌지역에 대한 도시의 수요를 개발한다면 농외소득 기회가 꾸준히 확대될 수 있다.

농산물의 국내 과잉이 예상되고, 농산물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앞으로 농업 생산은 양보다 질 위주의 생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고품질 차별화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무공해농산물 소비 증가에 부응하여야 하며 수입농산물에 대한 확실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생산, 출하, 유통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 주도의 시장 변화에 적응하는 농업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그리고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벤처농업, 환경농

업, 전자상거래, BT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농산물을 고급화, 브랜드화 한다면 국내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 충족을 지향하는 축산물 생산·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품종의 보급 확대, 수확후 관리기술을 확충하여 농축산물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품질인증제와 지리적표시제 도입으로 우수 농축산물이 시장에서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계시장에 경쟁력 있는 품목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가격 하락의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각종 경영안정제도, 농산물재해보상제도, 광범위한 직접지불제도 등의 도입이 앞으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추진될 것이다. 아울러 안정된 농업경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채과다 농가, 고령농가, 영세농가가 원활히 이·탈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감한 농업구조 조정 정책의 수립이 시급한 정책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농업정책의 핵심은 농가소득 문제가 될 것이다. 도·농간 소득 격차 해소, 그리고 농업내부의 규모 계층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세농의 농외소득 확대, 대규모 기간농가의 경쟁력 강화 등 계층별로 선택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농업소득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소득보조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농약정보**